

산재환자 만족도 98점...근로복지공단 우수 산재 의료기관 '찾아가는 시상'

- 2025년도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 33개소 선정... 산재 요양서비스 품질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걱정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의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요양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98점으로 전년보다 1.1점 상승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의 '튼튼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우수 의료기관 33개소에 대해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 1년간 종별 가산율 3~5% 추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우대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재환자가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현황>

구분	의료기관명
최우수 (16개소)	든든한병원, 큐병원, 구포성심병원, 21세기병원, 진천신라병원, 서울병원, 새동산병원, 전병원, (의)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베스트수병원, 대구시티병원, (의)갑을의료재단 갑을녹산병원, 베데스다복음병원, 척척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의)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우수 (17개소)	빌리브세웅병원, 김천제일병원(덕산의료재단), (의)장호의료재단녹동현대병원, 힘내라병원, 수원버팀병원, 울산병원, 조은마디병원, 목포기독병원, (의)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송호옥병원, 검단탑병원, 서울바른척도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인천백병원, 두손병원, 더블유병원, MS재건병원

담당 부서	보험급여국 요양급여심사부	책임자	부 장	김주영 (052-704-7481)
		담당자	팀 장	김병국 (052-704-7482)

